

#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복음으로 여는 요한일서-

레위기 19:18, 요한일서 4:9-11

정윤돈 목사님

“잔지전능하시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 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축복과 특권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리석어서 사단에 속아 죄에 빠져서 이 땅에서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특권까지 허락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며 또 세계복음화를 위한 다락방제자가 되어서 237 나라 5000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메시지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으며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아 현장에 도전할 힘을 얻는 성령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달 전에 새로 오신 성도 분이 계신다. 강단을 너무 잘 붙잡는 분이요. 그 분이 참사랑교회 단톡에 계속 올라오는 메시지와 구원의 길 영상을 보시더니 나도 다른 사람처럼 진도하고 싶다고 하셨다. 그렇게 90세되신 어머니를 영접시키셨다고 한다.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헌물도 하셨다. 성령인도 받으면 내가 인도받아야 할 것을 아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제자 양육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교회에서 제자를 만들 수 있어야 세계복음화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지교회에서는 강단을 어떻게 붙잡는지,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원색적인 복음을 통해 현장에서 어떻게 생명, 진도운동하는지를 알려주면 된다. 지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먼저 말씀성취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실수한 이야기도 은혜가 될 때가 있다. 잘하는 것만 포럼 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맞추어서 살기를 원하는 포럼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인간이 어떻게 그게 가능 하겠는가. 여러분이 착해서 참는 것은 오래 못 간다. 기준 수준, 표준이 성경이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확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럼 나와 우리들에게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어떤 피해를 주어야 원수가 될까? 생각해보시기를 바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원색복음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황폐한 국가관을 성경중심으로 바꿔주는 선고를 해야 한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말씀하셨다. 램프들이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한다.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 이유는 우리도 그보다 더 약한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사랑도 단계를 있다. 초급 사랑은 당연히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중급은 아무 관계없는데 사랑과 후원을 베푸는 것이다. 그런데 고급 사랑은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다. 참고 복수만 안 해도 큰 사랑이다. 초특급 사랑은 원수를 먹이고 마시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죄인이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당신이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믿기만 하면 복을 다시 주신다고 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을 마음에 품기를 바란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도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내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원수를 반드시 갚아 주신다. 그런데 우리에게만 원수 갚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반드시 갚을 치르신다.

오늘은 요한일서를 중심으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 받았고 12제자 중 가장 오랫동안 살아서 교회를 지켰던 사도였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하나님, 교회, 성도를 사랑해야 한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일, 이, 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다. 이중 요한일서는 요한 사도가 밧모섬으로 유배를 떠나기 전에 기록했다.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세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는, 당시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복음적으로 변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할 당연한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여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성경을 기록한 더 명확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성경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여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1. 큰 첫 번째이다. 요한일서는 성삼위 하나님과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중언하고 있다.** 요한일서 1장을 보면 본문을 시작하면서부터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정확히 알고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에 이 사실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인 적그리스도들이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1)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분이 하나님이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역사하니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자세히 설명하였을까? 그 이유는 당시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성육신하신 것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홀로그램처럼 영으로 오셨지 어떻게 더러운 육으로 오셨나면서 완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다. 굉장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었지 만 동시에 굉장한 타락한 사람들이었다. 지금 엘리트들이 그렇다. 옳은 말을 하지만 삶은 타락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의 신성함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육은 완전타락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이신 줄을 믿기를 바란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이다. 여호와증인은 성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성령님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힘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신 성삼위일체 진리를 여러 분이 사수하기를 바란다. 종교개혁에서 칼빈이 복음을 다시 찾았다. 그 정리된 칼빈 신학을 우리 장로교가 그대로 받고 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진 그리스도, 전도, 현장성을 다시 회복하는 중이다. 그 사역에 주역으로 쓰임 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정확히 말하고 있다. 예수님은 천국에 부활체로 계신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3)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이단 적그리스도들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2절로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도니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이 아들을 정확히 알아야 시인할 수 있다. 아들은 하나님과 동일하시며 그의 형상이며 그의 본질이다. 그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 오신다. 모든 것을 그렇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본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과거, 현재, 미래가 중 하나라도 없으면 시간이 없다. 가로, 세로, 높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공간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삼위일체로 창조하셨다.

**2. 큰 두 번째이다.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1)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참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요한일서는 어떤 성경보다 사랑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본문들을 찾아보겠다.

(1) 요한일서 3장 14절로 18절이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요일3:14) 사랑의 실천을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있다면 사랑을 실천 안 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사람은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구원의 복음과 은혜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초급, 중급, 고급, 초특급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깊이 깨달아지는 만큼 사랑의 사람이 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요일3:15) 이 정도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영접한 이후에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지키기 어렵다. 그건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길이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일3:16) 이 정도로 형제, 교회, 성도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램네프도 마찬가지이다.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회생해서라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목숨을 걸만한 마음이 아니면 사랑하지 어렵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단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요일3:17)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3:18) 사실적으로 실천할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이다. 진짜 사랑하면 실천한다. 실천이 안 나온다는 것은 사랑의 수준이 낮음을 이야기한다.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영원토록 남는다.

(2)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이다.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장의 내용과 함께 사랑에 대하여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복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도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요일4:7-12)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왜 양보하고 왜 참아야 하나? 라는 생각들이 때 이 말씀을 생각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된다. 온전한 교회와 전도를 이룰 수 있다. 가정과 교회에서 그런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

(3) 요한일서 4장 16절로 21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요일4:16)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너희도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의미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대답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요일4:17)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나라를 지키거나 자식을 지킬 때도 두려움이 없다. 사랑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교회, 현장, 가정을 지키기를 바란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요일4:18)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4:19) 이 말씀이 우리들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요일4:20)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도들은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종교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신다. 단번에 되지는 않지만 착각에 빠지진 마라.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나의 수준을 정확히 알아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요일4:21) 그래서 서로사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다.

(4)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성도)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기 때문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이란 ‘서로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쉽다.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사실 더 힘든 것이다.

2)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다면 거짓말하지 말고 죄를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구원 받듯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용서도 가능하고 사실적인 사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거짓말하는 것은 사탄의 흑암 가운데 잡혀 있는 상태이다.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나의 부족함이 안 보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 빛은 거짓없이 모든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이다. 중독자들도 진실하게 고백할 때 치유가 시작된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즉,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가 속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전도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3) 다음으로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욕을 가졌기에 세상에 욕심이 생길 수 있지만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한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셨다. 이런 사람이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서밋이고 이때 이 세상의 빈 곳을 살리는 피수꾼, 영적 의사,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는 자가 세상을 치유할 수 없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이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선악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특히 램네프들은 직장생활 할 때 월급 생각하면 성공 못한다. 일을 배우고 미래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이다. 어떤 분야에 성공하려면 최소한 6명 이상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라고 하셨다. 본질적으로 일을 잘 해야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로또도 절대 사지 마시라.

**3. 큰 세 번째이다. 요한일서에는 구원과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복음요절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복음요절들은 스스로의 구원의 확신과 또 전도를 위해서는 꼭 암송하는 것이 좋다.

1) 우리 인간들은 창세기 3장의 원죄와 그로 인한 자범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원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믿을 때 사해진다. 그러나 자범죄는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닦아야 한다. 정시기도, 예배 때마다 고백하기를 바란다.

2) 요한일서 2장 12절에는 “자녀들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 보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했다는 의미이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라는 단어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나 그들은 참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의 근본문제인 불신앙, 죄, 사탄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영접했을 때 용서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3)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이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 이 말씀은 구원에 확신에 대한 증거를 말씀해 주고 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영접)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세가주에게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어야 한다. 다락방에서는 원색적인 복음을 잘 설명해 주어야 한다.

오늘도 요한일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신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의 언약은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최종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체질이 되는 것이다. 이 상태가 초특급 믿음이고 초특급 사랑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에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복음과 완전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다. 영화 ‘창립’에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사랑에 대해 잘 나와 있다. 이 마음을 가져야 선교할 수 있다.
3. Dream, 꿈이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기 위해 24시간 기도한다면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도를 위한 이미지트레이닝을 하라. 이번 주에는 원수된 사람에게 전화도 해 보시기 바란다. 또한 4차 산업, 인공지능, 메타버스를 위한 이미지트레이닝을 조금만 집중한다면 모든 응답을 미리 볼 수 있을 것이다.
5. Practice, 실천이다. 어렵더라도 원수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참사랑에 도전해 보시기 바란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이다.

예수생명, 예수능력 안에서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회를 통해 3천 제자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전도와 사랑을 막는 흑암의 세력을 권세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237 모든 나라와 종족,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교단과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